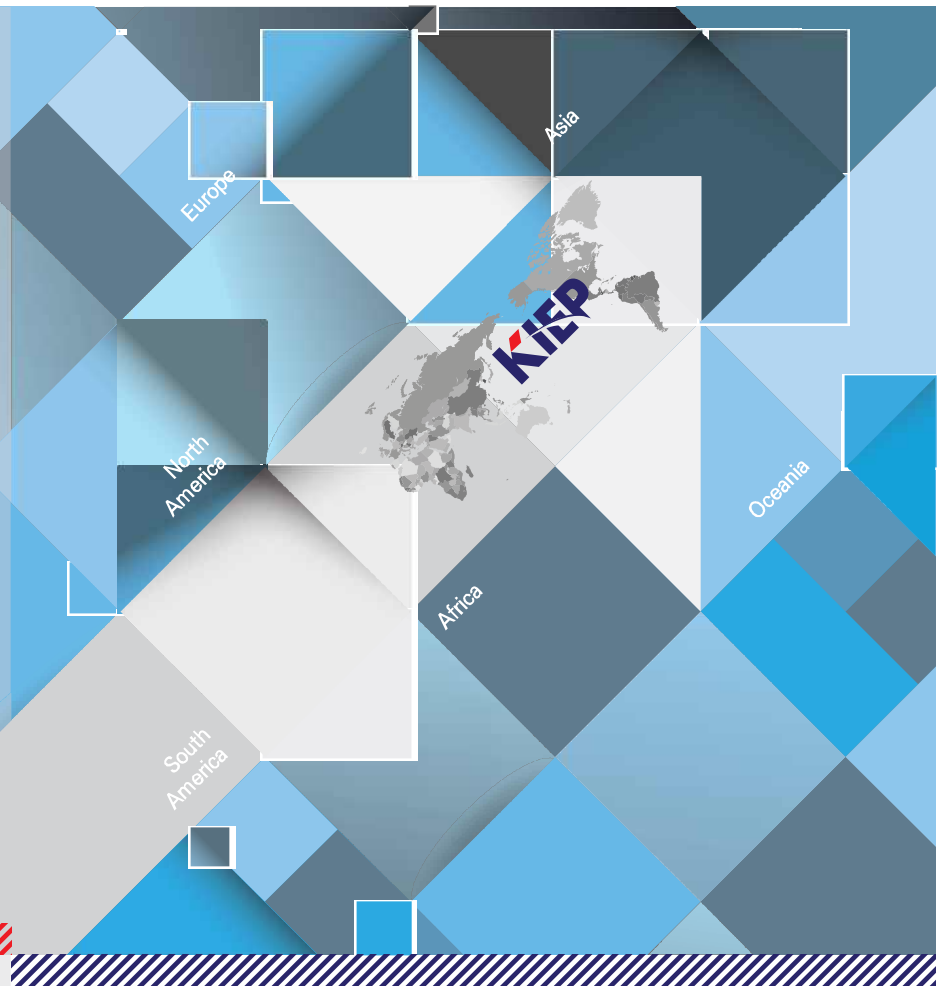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9-04

2019년 5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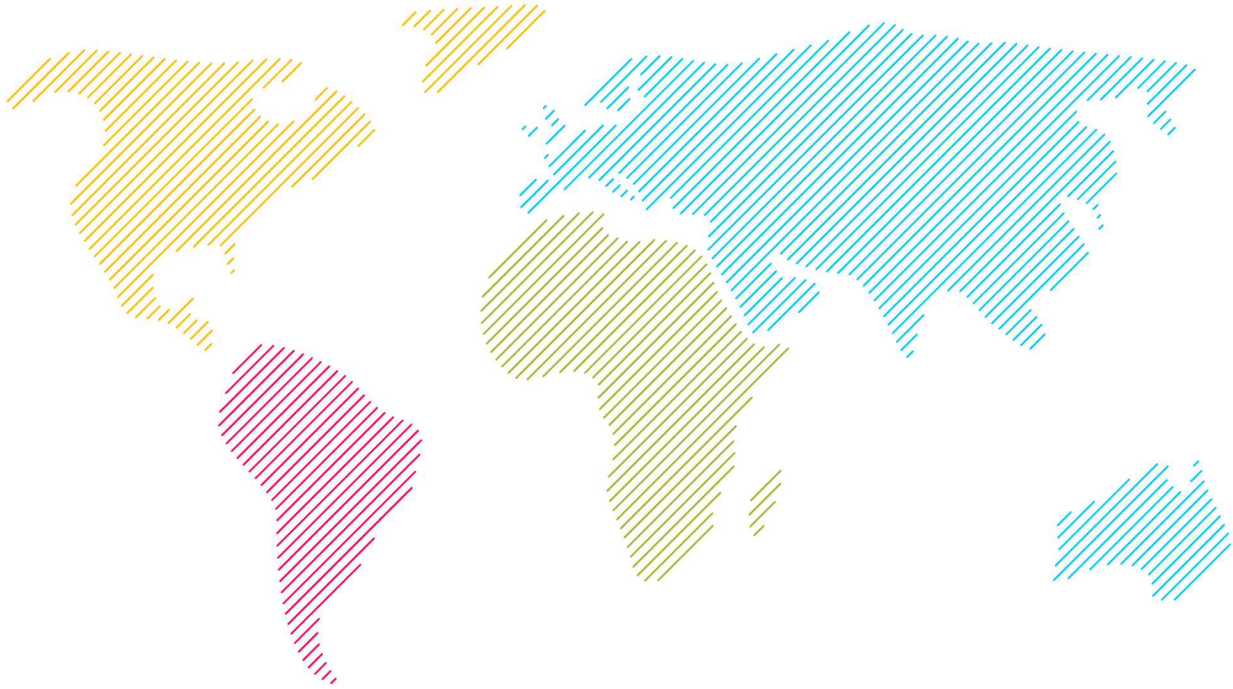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추진과 전망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046)

중국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추진과 전망

요약

- ▶ 중국은 2019년 올해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통합 발전계획인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아우르며, 중국 국내외적으로 인구 7천만 명, GDP 1조 5천억 달러의 메가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 중국은 세 지역의 지역경쟁우위를 제고하여 향후 국가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이끌고, 홍콩·마카오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중국 국가전략과의 융화를 목적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추진함.
 - 특히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이 국가 발전전략으로 격상되면서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에 기존 정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
- ▶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은 역내 인프라 연결, 과학기술혁신 허브 건설, 대외개방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함.
 - 홍콩을 중심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광역교통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글로벌 혁신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선전시를 위시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며 인재, 자본, 정보, 기술 등 혁신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책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 중국은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의 무역투자 자유화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 CEPA 틀 안에서 금융, 교육, 법률, 운송, 통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홍콩·마카오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대일로 관련 글로벌 기업 참여의 확대를 꾀함.
- ▶ 광둥성은 홍콩·마카오와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시범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홍콩과 마카오는 기존 비교우위를 강화시키면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광둥성은 2015년 출범한 자유무역시험구(첸하이-서커우, 난사, 형칭)를 기반으로 홍콩, 마카오와 금융, 무역, 물류, 법률, 의료 등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홍콩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지' 건설을 착수하며, 향후 선전시와의 창업·혁신자원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모색함.
 - 마카오는 중국과 포르투갈 언어권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컨벤션 사업 활성화, 제품 수입 및 유통거점 조성 등 중국의 대(對)포어권 경협 플랫폼으로 발전하고자 함.
- ▶ 과학기술혁신 허브로서 웨강아오 대만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통합의 핵심 요소인 제도 개혁 측면에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통관 일체화, 인력이동 및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차 례

1.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논의 및 배경

2.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의 주요 내용

가. 과학기술혁신 허브

나. 인프라 연결

다. 대외개방과 일대일로

3. 주요 지역의 추진사업

가. 광둥성 주장삼각주

나. 홍콩·마카오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논의 및 배경

■ 중국은 중요한 지역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통합 발전계획인 이른바 '웨이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¹⁾

-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둥(广东)성과 홍콩·마카오는 과거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사업을 시행해왔음.
- 2003년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CEPA 체결,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등을 계기로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에 무역·투자 자유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2018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 시찰 당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광둥성 개혁·개방의 큰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고, 이로써 광둥성은 기존 정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지난 2월 중국 정부에서 「웨이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을 발표하면서 과거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도시권 발전계획과 지역협력 정책이 국가 발전전략으로 격상되었음.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은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정치국의 한정(韩正) 상무위원의 지휘하에 추진되며, 이는 이 사업의 정치적 중요성을 시사함.²⁾

그림 1.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자료: HKTDC(2019. 2. 20),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표 1.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주요 지표(2017년)

지역 구성	광둥성 9개 도시, 홍콩, 마카오
면적(km ²)	55,904
인구(만 명)	6,958
전체 GDP(억 달러)	15,124
1인당 GDP(달러)	21,750
수출액(억 달러)	10,901

자료: HKTDC(2018. 6. 22), "Statistics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 중국은 지역의 경쟁우위를 제고하여 국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중국 주도의 다자협력 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일대일로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웨강아오 대만구를 건설하고자 함.

- 웨강아오 대만구 내 생산요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각 지역의 발전제약 요인을 상호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 및 경합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
- 특히 정부 행정조치 간소화, 시장 기능 강화 등 홍콩과 마카오의 시장질서에 기초한 개방형 경제체제를 광둥성 주장삼각주에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웨강아오 대만구는 홍콩, 마카오, 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둥관, 후이저우, 중산, 장먼, 자오칭(11개 도시)을 포함.

2) Financial Times(2018. 9. 3), "Greater Bay Area: Xi Jinping's other grand plan."

-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광둥성은 지금도 중국 내 혁신성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광둥성과 홍콩·마카오의 경제통합으로 혁신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중국의 성장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글로벌 자금조달 플랫폼으로서 홍콩과 마카오 역할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핵심 발전목표 중 하나이며,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 인프라 및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청화대 마쥔(马骏) 교수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일대일로 사업은 주로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 및 자금 조달에 의존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자본력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함.³⁾

2.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의 주요 내용

가. 과학기술혁신 허브

- 중국은 글로벌 혁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선전시를 중심으로 웨강아오 대만구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상호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웨강아오 대만구를 글로벌 기술혁신의 허브와 첨단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 선전시는 과거 노동집약적 가공무역기지에서 현재 전 세계 스타트업이 주목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창업·혁신 도시로 변모하였으나, 미국·유럽 등지의 혁신 도시들과 비교해 혁신의 핵심요소인 인재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임.
- [표 3]에서 보듯이 고학력자 유입경로 중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해외 비중이 높으나 선전과 광저우의 경우 국내 비중이 높음.⁴⁾
- 선전시 내 기술창업이 활발하여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많고 해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은 홍콩에 집중되어 있음.
-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광둥성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모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홍콩 내 일각에서는 홍콩의 경제규모가 선전보다 작아진 원인으로 단일한 산업구조와 성장 동력 약화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⁵⁾

3) 马骏(2019. 2. 13), 「大湾区有望成为新一轮开放的突破口」, 财新网.

4) 清华大学(2019), 「粤港澳大湾区数字经济与人才发展研究报告」.

5) 2018년 선전시와 홍콩의 GDP는 각각 24,222억 위안, 24,001억 위안으로 선전시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처음 추월하였음. 자료: 「【國情點題】深圳GDP首超香港 有一個重要啟示」(2019. 2. 28), 香港經濟日報.

표 3. 웨강아오 주요 도시의 R&D 투자 및 고학력자 유출입 현황(2017년)

구분		선전	광저우	홍콩	마카오
GDP 대비 R&D 투자 비중(%)		4.1	2.5	0.8	0.1 ¹⁾
웨강아오 지역의 고학력자 유입 중 해당 지역의 비중(%)		40.2	22.7	9.7	0.7
고학력자 해외 유입/유출 비율		1.65	1.11	1.08	0.88
고학력자 유입경로	해외(%)	20.7	23.7	80.3	75.5
	중국 국내(웨강아오 제외, %)	54.4	48.2	13.9	16.5
	웨강아오 지역 내(%)	24.9	28.1	5.7	8.0

주: 1) 2015년 수치임.

2) 고학력자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의미함.

자료: 清华大学(2019), 「粤港澳大湾区数字经济与人才发展研究报告」; 「广州研发投入强度逐年提升仍低于全省平均水平,亟待提升!」(2018. 9. 25), 南方都市报; 「【國情點點】深圳GDP首超香港 有一個重要啟示」(2019. 2. 28), 香港經濟日報; 謝四德(2018), 「澳門產業機構問題與優化路徑選擇」, 「“一國兩制”研究」 2018年 第4期.

표 4. 웨강아오 대만구 역내소재 대학

지역	주요 대학
홍콩 (6개)	홍콩대학(25), 홍콩과학기술대학(37), 홍콩중문대학(49), 홍콩성시대학(55), 홍콩이공대학(106), 홍콩침례대학(277)
광저우 (4개)	중산대학(295), 화남이공대학, 지난대학, 남방의과대학
선전 (2개)	선전대학, 남방과학기술대학
마카오 (2개)	마카오대학(443), 마카오과학기술대학

주: 괄호 안은 전 세계 대학 랭킹 중 해당 순위임. 500위 이하 표기 생략.

자료: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http://www.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9>(검색일: 2019. 3. 27).

■ 웨강아오 발전규획에서는 역내 글로벌 혁신자원의 집적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 자본, 정보, 기술 등 혁신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연구정책자금 운용] 웨강아오 지역 내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홍콩·마카오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신청과 홍콩·마카오에서의 자금 사용을 허용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합으로 '웨강아오 기술혁신펀드'의 설립과 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며, 관련 자금의 국경 이외의 사용을 허용함.
- [기술기업 투자] 홍콩 사모펀드의 웨강아오 지역 내 혁신형 과학기술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해당 기업의 홍콩증시 상장을 허용하며, 향후 홍콩을 웨강아오 지역 첨단기술기업의 자금조달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임.⁶⁾
- [지식재산권 보호] 광저우시의 지식재산권법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콩을 역내 지식재산권 거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지식재산권 정보 교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최근 연구개발 관련 종사자 및 기업의 지역 간 이동 편의성 제고, 인재 유치를 위한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정책이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음.
 - 대학 및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통행증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통행증 신청 조건을 완화하며,⁷⁾ 조건에 부합하는 홍콩·마카오 및 해외국적의 우수인재에 대해 중국 본토 내 통용되는 차량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홍콩·마카오 및 해외 우수 인재가 광둥성 내 취업 시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광둥성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함.⁸⁾

6) 중국 국내 기업의 홍콩 증시 상장은 이미 허용되어 왔으나 상장요건 및 중국 국내 절차가 까다로워, 주로 국유기업이 상장해왔고 신생 혁신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장하였음. 그러나 이번 정책문건에서 홍콩증시 상장 허용을 명시하는 데 그칠 뿐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7) 현행 규정상 중국 본토에서 발급하는 홍콩·마카오의 상용 비자 종류는 각각 3개월 단수, 3개월 복수, 1년 복수 비자 등 3가지로 제한되어 있음. 자료 广东省公安厅出入境政务服务网, http://crj.gdga.gov.cn/bszn/ndjmwlgat/201102/t20110218_20790.htm(검색일: 2019. 3. 27)

■ 과학기술혁신의 중점분야로서 생명과학 분야를 제시하였고, 특히 개방형 혁신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국가유전자정보은행의 역할을 언급

- 웨강아오 지역 내 연구기관에 한하여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의료데이터와 혈액 등 연구용 바이오 샘플 사용의 편의 증진과 임상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 선전시에 소재한 '국가유전자정보은행(国家基因库·China National GeneBank)'의 주도하에 '일대일로 생명과학기술 촉진 협회'의 설립을 지지함.
 - 중국은 2016년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국가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였고, 세계적인 유전체 연구소인 선전시의 BGI(华大基因)가 국가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⁹⁾
 - '일대일로 생명과학기술 촉진 협회'는 2018년 중국바이오산업컨벤션(中国生物产业大会)에서 BGI가 발의하고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라트비아, 라오스, 아랍 에미리트 등 국가의 공동협력 합의로 출범함.

나. 인프라 연결

■ 광둥성, 홍콩, 마카오 내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인프라의 기본들은 이미 갖춰진 상태이며, 웨강아오 대만구의 항공, 육상, 해상 교통 인프라의 이용객 및 화물처리량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높은 순위권을 차지

- 2018년 홍콩, 마카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를 연결하는 강주아오(港珠澳) 대교와 광저우(广州)-선전(深圳)-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이 개통되어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등 역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한 교통연계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함.
 - 일례로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의 완공 후 홍콩 공항에서 주하이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되었음.
- 웨강아오 대만구는 전 세계에서 공항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11개 도시 내 7개 공항이 운영 중이며, 지역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공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임.¹⁰⁾
- 웨강아오 대만구의 대표 항만인 선전항(3위), 홍콩항(6위), 광저우항(7위)은 화물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10대 항구에 포함됨.¹¹⁾
- 2018년 광둥성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1,542km에 달하고, 고속도로 밀도는 0.08km/km²로 중국 전체에서 높은 수준임.

8) 특히 소득세를 격차는 인력이동의 대표적인 제약요인으로 꼽혀왔음. 홍콩과 마카오 표준세율은 각각 15%, 12%이나 중국 본토의 소득세율은 최대 45%에 이름. 자료: CCG 南方国际人才研究院(2018), 「粤港澳大湾区人才发展报告」.

9) 「国家基因库开幕在即将成为全球最大生命信息平台」(2016. 9. 9), 21世纪经济报道.

10) 「珠三角世界级机场群建设的几点思考」(2017. 12. 29), 中国民航网.

11) World Shipping Council, <http://www.worldshipping.org/about-the-industry/global-trade/top-50-world-container-ports>(검색일: 2019. 3. 27).

표 2.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과 세계 주요 Bay Area와의 비교(2017년)

구분	웨강아오 대만구	샌프란시스코 ¹⁾	뉴욕 ¹⁾	도쿄 ¹⁾
항공여객수송량(백만 명)	201.7	81.3	132.2	123.9
항공화물수송량(만 톤)	796	118	216	358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만 TEU)	6,648	242	625 ²⁾	776 ²⁾

주: 1)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만과 접해 있는 9개 카운티,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New York, Newark, Jersey의 세 도시와 25개의 주변 카운티, 도쿄 만 지역은 도쿄와 주변 7개의 현을 포함함.

2) 2016년 수치임.

자료: HKTDC(2018. 6. 22), "Statistics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 중국은 홍콩을 중심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경제 협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글로벌 교통물류 중심지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항만 및 공항의 서비스 수준과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임.
- 홍콩의 선박관리서비스, 선박금융서비스, 해사분류 법률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홍콩, 광저우, 선전, 마카오 등 주요 도시 공항의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광저우 신공항 건설 사업을 검토할 방침임.
- 주장삼각주 중심부 도시(선전-중산, 광저우-동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과 주장삼각주 내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1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고자 함(그림 2, 3 참고).
- 홍콩·마카오와 광둥성 간 출입경(出入境) 관련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역내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경출입구인 커우안(口岸)의 자동 출입경 심사대 및 24시간 통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

그림 2. 웨강아오 대만구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계획안



주: 청색선은 고속철, 녹색선은 도시철도이고 실선은 완공된 구간, 점선은 건설계획 구간임.

자료: 平安证券(2019), 「粤港澳大湾区专题报告——轨交+智慧交通建设提速, 打造大湾区一体化交通网络」

그림 3. 주장삼각주 중심부 도시 간의 교량 연결



자료: 「一座大桥引发的争议」(2018. 12. 15), 财新周刊.

■ 정보통신 및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역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내 통신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역내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의 감면안을 검토
- 역내외 전력·천연가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신설·증설하며 석탄 및 석유 비축기지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
- 스마트 도시 건설 관련 통일된 표준을 도입하고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 에너지, 정부서비스 등 방면의 발전을 추구

다. 대외개방과 일대일로

■ 2003년 중국은 홍콩·마카오와 CEPA를 체결한 이래 점진적으로 보충협정(Supplements),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중·홍콩 CEPA, 중·마카오 CEP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개방도가 가장 높은 무역협정이 되었음.

- 중국과 홍콩, 중국과 마카오는 2004~13년 총 10차례 보충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양자 간 광둥성 내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소위 '광둥협정(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Guangdong)'을 체결함.
 -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철폐는 2005년 보충협정에서 완료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서비스 부문 개방과 무역투자 원활화 조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
- 그간 광둥성 내 선행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5년에 서비스협정을, 2017년에는 투자협정과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함.
- 2018년 12월 CEPA 상품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여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였고 별도의 장으로 '웨강아오 대만구 무역편리화 조치(粤港澳大湾区贸易便利化措施)'를 포함시킴(표 5 참고).

표 5. 2018년 중·홍콩, 중·마카오 CEPA 상품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주요 내용(2019년 1월 1일 발효)

원산지 규정	웨강아오 대만구 무역편리화 조치
-원산지 부가가치 산정방법 추가: 기존 계산법(직접법) 이외에 공제법을 추가하여 원산지 인증 기준을 완화 -현행 「상품특정원산지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모두 「일반규칙」에 적용하여 원산지 기준을 명확화	-정기적으로 화물 통관시간을 공표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 -저위험 제품의 시험·검역 결과 상호 인정(동식물, 식품, 의약품 제외) -중국산 원자재를 홍콩에서 가공한 식품의 통관 편리화 조치 시행

자료: 香港工业贸易署, https://www.tid.gov.hk/print/sc_chi/cepa/legaltext/cepa17_note.html#note-4(검색일: 2019. 4. 1).

■ 중국은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의 개방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금융, 교육, 법률, 운송, 통신, 중의약 등 분야에 대해 CEPA 틀 안에서 기존보다 더욱 개방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중·홍콩 CEPA, 중·마카오 CEPA를 토대로 금융, 교육, 법률, 운송(해상, 철도), 통신, 중의약, 건축토목 관련 특별 개방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홍콩·마카오 투자자의 자격요건, 지분비율, 시장진입 관련 제한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음.
- 특히 서비스업 관련 홍콩·마카오의 전문서비스 자격증의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홍콩·마카오의 전문인력 서비스 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할 계획임.
- 최종적으로는 개방형 경제체인 홍콩·마카오가 개방 플랫폼을 발휘하여 양자 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둥성 주장삼각주 지역이 국제적인 수준의 무역투자 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를 일대일로 건설의 주도 지역으로 언급하고 특히 홍콩과 마카오가 금융, 사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

- 위안화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 2019년 2월 홍콩 정부기관(商务及经济发展局)과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중앙국유기업과 홍콩 금융전문가 간에 일대일로 관련 투자 리스크 관리와 홍콩의 역할에 대해 논의¹²⁾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국 주도의 국제협력 금융기구와 홍콩·마카오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홍콩과 마카오 내 실크로드기금(丝路基金) 및 여타 국제협력 금융기구의 사무국 설치를 지지함.
- 마카오의 AIIB 가입과 실크로드기금, 중국-라틴 산업협력투자 기금(中拉产能合作投资基金), 중국-아프리카 산업협력기금(中非产能合作基金)과의 협력을 지지함.
- 홍콩에 일대일로 관련 국제중재센터를 건설하여 웨강아오 지역의 무역·투자 관련 중재 및 조정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함.

■ 금융, 물류,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등 홍콩과 마카오의 강점을 활용하여 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제3국 공동 시장진출을 장려함.

- 광둥성, 홍콩, 마카오 기업이 공동으로 그린필드 투자, M&A,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 본토기업의 해외 진출 시 홍콩 금융기관을 통한 자본 조달을 장려함.
- 마카오의 포르투갈 언어권과의 네트워크 우위를 활용하여 포르투갈 언어권 국가와의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전개하고 공동으로 시장 개척을 추진
-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항만 주변에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지역단위의 항만 협회를 결성하고자 함.

12) 「国资委与香港业界交流“一带一路”建设风险管理」(2019. 2. 26), 新华社.

3. 주요 지역의 추진사업

가. 광둥성 주장삼각주

■ 광둥성은 홍콩·마카오와 공동으로 3개 협력 지역(난사, 첸하이-서커우, 형진) 내 진일보된 개혁조치와 개방 확대 시범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난사(南沙), 첸하이(前海)-서커우(蛇口), 형진(横琴)은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간 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이뤄져왔던 주요 지역임.
- 특히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는 홍콩·마카오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CEPA 및 세관특수관리구역 관리방식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림 4.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개요



주: 외국인투자기업 누계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추산.

자료: 김홍원(2018. 5. 30), 「광둥성 외국인투자 현황과 기업의 진출방향 제언」, 한국기업 대만구(大湾区) 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
「广东大胆实践探索, 自贸试验区争当“试验田”」(2019. 2. 14), 南方日报.

■ 홍콩과의 경제통합 시범지역인 선전시 첸하이는 홍콩의 경쟁우위 산업인 금융, 중계무역, 해운, 법률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금융시장 개방 측면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도입된 자유무역계좌를 참고해 자본계정 자유화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임.
- 이외에 홍콩거래소와 첸하이 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첸하이 거래소(前海联合交易中心)를 기반으로 원자재 현물 거래 플랫폼을 조성하고 녹색금융(Green Finance)과¹³⁾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계무역(离岸贸易),¹⁴⁾ 해운서비스, 선박·해운 금융 발전을 도모
- 광둥성, 홍콩, 마카오 법률사무소 공동 설립과 시범 운영을 심화하며, 홍콩과 마카오 법률인의 시장진입 요건과 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첸하이에 국경출입구인 커우안(口岸)을 설립해 홍콩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홍콩의 건축·토목 서비스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주장(珠江)을 경계로 주장삼각주의 동편과 서편을 이어주는 광저우시의 난사는 국제해운, 금융, 과학기술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주장삼각주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주장삼각주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해상운송 중심이자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서비스 기지로 조성하고자 함.
- 선박·해운금융, 항공금융,¹⁵⁾ 기술금융 등 실물경제 지원에 특화된 금융업을 발전시키며, 웨이강아오 대만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 '웨이강아오 대만구 국제 상업은행'을 신설하고 별도의 지역계좌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별도의 지역계좌를 활용하여 국경간 자금관리, 위안화 역외 사용,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등 측면에서 선행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국경간 무역 활성화 및 투자결산 편의를 도모
- IT,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해양과학기술, 신소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체험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화남(华南)지역의 과학기술 사업화 요충지로 발전시키고자 함.
 - 광둥성과 홍콩, 광둥성과 마카오 간에 계획-개발-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개발이익을 공동 분배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 주하이시의 형친은 마카오와의 협력 시범구로서 관광, 물류, 의료 분야 등에서 대(對)마카오 협력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 형친과 마카오 간 방문객의 이동 편리화 조치를 모색하고, 마카오 관광업의 시장진입을 완화할 방침임.
- 광둥성과 마카오 간의 중의약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입주기업의 신약개발 및 인증사업을 지원하며, 홍콩과 마카오 의료진의 의료서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할 계획임.
- 2015년 완공된 '형친-마카오 청년창업밸리(青年创业谷)'와 '광둥-마카오 산업단지' 등 중점 프로젝트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형친 내 보세구 개발과 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공동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13) "녹색금융의 발전은 중국의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녹색금융 관련 국가 금융시스템을 건립하였을 뿐 아니라 인가·검증제도를 구축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홍콩주재원(2018. 7. 9), 「중국 및 홍콩의 녹색금융(Green Finance) 현황과 전망」.

14) "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로 단순한 판매 앞선인 중계무역과는 다름." 자료: 연합뉴스(2014. 6. 9), 「중계무역·중개무역·가공무역의 차이는」.

15) "항공금융은 항공기개발금융 및 항공기금융 등 항공기의 개발·제조·도입·운영에 이르는 항공산업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금융조달을 포괄하는 용어임." 자료: 삼정회계법인(2017), 『항공금융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수탁과제.

나. 홍콩·마카오

■ 중국은 홍콩을 세계적인 금융, 물류, 무역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의 국제법률 및 중재서비스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함.

- 국제적인 자유무역항이자 런던, 뉴욕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은 시장개방, 규제 효율성, 정부 개입, 법치주의 측면에서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1위를 지키고 있음.¹⁶⁾
- 홍콩은 아시아와 서구를 이어주는 아시아 허브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무역·금융·법무·회계·관광·컨벤션 등 서비스업 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¹⁷⁾
 - 무역업↔물류업, 금융업↔법률서비스, 관광·호텔업↔컨벤션 산업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외연을 확대해왔음.
- 홍콩이 지닌 기존 경쟁우위를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국제법률 및 중재서비스 등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 홍콩 내 중재판정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되며, 중국 및 동남아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홍콩 내 중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¹⁸⁾

■ 홍콩은 무역·금융서비스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T 서비스, 과학기술혁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자금 및 연구협업 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임.

- △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관련 응용기술 △ 방직 및 의류 △ IT △ 나노 및 신소재 △ 자동차 부품 등 5대 분야의 R&D 센터 설립을 추진함.
- 홍콩과 선전시의 접경지역인 '록마차우 허타오'에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지(港深创新及科技园)'를 건설하여 두 지역 간 혁신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고자 함.
 - 록마차우 허타오는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홍콩에 할양한 토지로 2011년 홍콩과 선전시 정부 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7년 혁신과학기술단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함.
 - 홍콩 정부가 록마차우 및 주변 인프라를 조성하고 홍콩과 선전시가 공동으로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자유한공사(港深创新及科技园有限公司)'를 설립해 단지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의 홍콩분원(中科院香港创新研究院)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2018년 11월 1차적으로 중국과학원과 홍콩정부 간에 MOU를 체결하고 바이오의료와 인공지능·로봇 분야의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 마카오는 1인당 GDP 기준 전 세계 2위인 고소득 도시이나 카지노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토지 및 인적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한계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¹⁹⁾

16)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index/country/hongkong>(검색일: 2019. 4. 3).

17)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2017), 『Super Connector HONG KONG』.

18)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2017), 『Super Connector HONG KONG』.

19) 澳门发展策略研究中心(2017. 6. 15), 「粤港澳大湾区城市群——澳门的角色、挑战与策略」.

- IMF(2018)에 따르면 마카오의 1인당 GDP는 8만 6천 달러로 세계 2위이며,²⁰⁾ 인구밀도는 홍콩의 3배에 달함.
-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 GDP의 약 50%를 차지하며, 10대 산업 중 부동산업, 유통업, 호텔외식업 등이 모두 카지노 산업에 의존하여 성장해옴.
- 토지 부족 문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기업 운영비의 상승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은 마카오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흥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마카오가 주변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융화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마카오를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와 중국과 포르투갈 언어권 간의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마카오를 중심으로 '웨이강아오 관광협력 도시연맹'을 창설하여 지역 간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브랜드 구축을 추진하고,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 형친과 마카오 간 중국-라틴 경제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 간의 무역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킬 계획임.
 - 마카오 내 양측의 경제협력을 위한 컨벤션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국과 포르투갈 언어권 중소기업간의 경제협력과 농식품 무역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마카오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육성하여 마카오와 형친을 포르투갈 언어권 국가의 상품 수입 및 유통거점으로 활용
 - 중국-포르투갈 언어권 국가 협력발전기금의 본부로서 마카오를 포르투갈 언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안화 허브로 발전시키고 관련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마카오와 주하이 간 금융시범구 조성방안을 마련

4. 전망 및 시사점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은 일국양제(一国两制)²¹⁾하에 추진되는 유일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앞으로 △ 인력이동 자유화 △ 통관 일체화 △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은 한 국가 내 각기 다른 화폐를 쓰고 독립관세구역인 지역 간의 경제통합으로, 중국정부는 향후 전면적인 개방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자 일국양제 정책운용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자평
- 웨강아오 대만구가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격상되면서 CEPA 틀 안에서 현행 기준보다 더 개방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특히 CEPA 상품무역협정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무역 편리화 조치를 별도의 장으로 삽입한 것은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웨강아오 대만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드러낸 것임.

20)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검색일: 2019. 4. 5).

21) 중국 정부는 홍콩·마카오 반환 당시 외교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현행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을 50년간 유지하는 일국양제(一国两制)를 도입.

- 다만 아직 대부분의 정책조치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통관, 인력 및 자본이동 자유화 관련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책문건은 가이드라인 성격의 것으로, 관련 세부계획은 지방정부의 정책 발표 후 파악될 것임.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추진의 가장 큰 난제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국립대학의 정용넨(郑永年) 교수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방향성으로서 EU 사례를 참고해 세 지역 간에 산업·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의 경제통합체를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함.²²⁾
- 중국 내 일각에서는 제도 협력과 통합을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에 상호 거래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정책추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음.²³⁾
-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간 경제통합은 오랜 시간 논의된 사안으로 지금까지 정부 간 협의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제도적 차이로 인해 정작 경제협력의 주요 주체인 기업, 특히 홍콩·마카오 기업의 경제협력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았음.
- 또한 중국 국내 학자들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²⁴⁾

■ 광둥성과의 경제협력, 중국의 비관세조치 완화, 일대일로 추진 측면에서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과 우리의 대응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웨강아오 대만구는 첨단 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이 집적된 과학기술혁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는 바,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광둥성과의 경제협력 구상 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중국과 홍콩 간 상품무역이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무관세 혜택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비관세조치가 대폭 완화될 경우 홍콩을 경유한 중국의 상품 수입의 증가가 기대됨.
-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은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정책·산업기금의 설립과 참여, 인프라 및 산업 연맹 결성,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해외 경제협력 시 필요한 각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 및 해상 실크로드 관련 국가와의 협력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KIEP

22) 黄非 等(2018), 「“一带一路”倡议背景下的粤港澳大湾区协同发展」, 『华南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0卷 第1期.

23) 张紧跟(2019), 「论粤港澳大湾区建设中的区域一体化转型」, 『区域与城市经济』, 2019年 第1期.

24) "China's Silicon Valley rival 'needs market reforms, not grand plans'"(2018. 10. 30), SCM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홍원. 2018. 「광둥성 외국인투자 현황과 기업의 진출방향 제언」, 한국기업 대만구(大湾区) 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 (5월 30일)
- 삼정회계법인. 2017. 『항공금융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수탁과제.
- 연합뉴스. 2014. 「중계무역·중개무역·가공무역의 차이는」. (6월 9일)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2017. 『Super Connector HONG KONG』.
- 한국은행 홍콩주재원. 2018. 「중국 및 홍콩의 녹색금융(Green Finance) 현황과 전망」. (7월 9일)

[중문자료]

- 「一座大桥引发的争议」. 2018. 财新周刊. (12월 15일)
- 「珠三角世界级机场群建设的几点思考」. 2017. 中国民航网. (12월 29일)
- 「【國情點題】深圳GDP首超香港 有一個重要啟示」. 2019. 香港經濟日報. (2월 28일)
- 「国家基因库开幕在即将成为全球最大生命信息平台」. 2016. 21世纪经济报道. (9월 9일)
- 「广东大胆实践探索, 自贸试验区争当“试验田”」. 2019. 南方日报. (2월 14일)
- 「广州研发投入强度逐年提升仍低于全省平均水平, 亟待提升!」. 2018. 南方都市报. (9월 25일)
- CCG 南方国际人才研究院. 2018. 「粤港澳大湾区人才发展报告」.
- 马骏. 2019. 「大湾区有望成为新一轮开放的突破口」, 财新网. (2월 13일)
- 謝四德. 2018. 「澳門產業機構問題與優化路徑選擇」. 『“一國兩制”研究』. 2018年 第4期.
- 澳门发展策略研究中心. 2017. 「粤港澳大湾区城市群——澳门的角色、挑战与策略」. (6월 15일)
- 张紧跟. 2019. 「论粤港澳大湾区建设中的区域一体化转型」. 『区域与城市经济』, 2019年 第1期.
- 清华大学. 2019. 「粤港澳大湾区数字经济与人才发展研究报告」.
- 平安证券. 2019. 「粤港澳大湾区专题报告——轨交+智慧交通建设提速, 打造大湾区一体化交通网络」.
- 黄非 等. 2018. 「“一带一路” 倡议背景下的粤港澳大湾区协同发展」, 『华南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0卷 第1期.

[영문자료]

- “China’s Silicon Valley rival ‘needs market reforms, not grand plans’.” 2018. SCMP. (Oct 30)
- “Greater Bay Area: Xi Jinping's other grand plan.” 2018. Financial Times. (Sep 3)
- HKTDC. 2018. "Statistics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Jun 22)
- HKTDC. 2019.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Feb 20)

[웹사이트]

- 广东省公安厅出入境政务服务网. http://crj.gdga.gov.cn/bszn/ndjmwlgat/201102/t20110218_20790.htm(검색일: 2019. 3. 27).
- 香港工业贸易署. https://www.tid.gov.hk/print/sc_chi/cepa/legaltext/cepa17_note.html#note-4(검색일: 2019. 4. 1).
- IMF.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검색일: 2019. 4. 5).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9>(검색일: 2019. 3. 27).
-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index/country/hongkong>(검색일: 2019. 4. 3).
- World Shipping Council. <http://www.worldshipping.org/about-the-industry/global-trade/top-50-world-container-ports>(검색일: 2019. 3. 27).